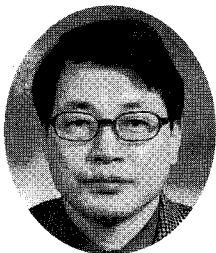


쌀생산 최우수도의 명예!

올해에도 지킬 터

병해충 정밀예찰로 현실정보 제공하여 적기방제 실현
최신 건조·저장시설 보급 및 경기미 명성으로 소득 증대



이 중 현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기술과장

식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앞으로는 돈이 있어도 먹거리를 구할 수 없는 생존위기의 시대가 올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추측이 가능하다.

지난해를 돌아켜볼 때 8월 상순 경기도 연천, 파주, 고양, 김포 등 한수북부 지역의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기상재해로 벼가 침수되고 농경지가 유실되어 벼 재배농민들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경기도

유사이래 최고 단수(單收)인 10a당 502kg을 기록함으로써 생산목표 3백96만6천석보다 8.2%가 증수된 4백29만4천석을 생산하였으며 전국 평균단수 494kg보다도 8kg이 많았다.

돌아켜 보면 '98년과 '99년 연속된 풍수해 속에서도 풍년농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농업인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농촌진흥공직자의 끊임없는 연구와 농업에 대한 영농기술 교육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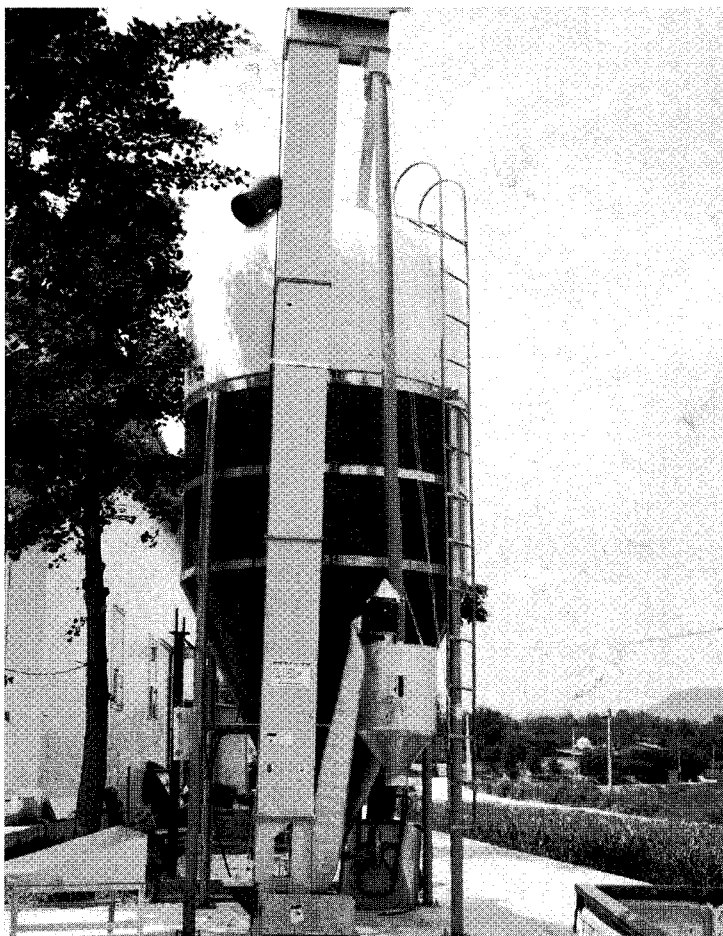
현장기술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판단되며 우리 농업인의 영농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복합적인 결과로 생각된다.

경기도는 경지면적이 매년 감소하였으나 휴경지 생산화등을 통하여 지난해는 최초로 식부면적이 4백ha 증가하였고, 5백kg 이상 생산되는 양질다수성 품종의 확대재배, 평당 포기수확보와 병해충 및 피·잡초없는 깨끗한 들판 만들기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로 인한 결실로 정부 쌀생산 시책추진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도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올해도 친환경농업 재배기술 확대보급하는 해로 만들어

금년에도 국민의 주식인 쌀의 자급을 위한 지속적인 안정생산과 양질다수성 신 품종의 조기 확대보급,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생산비 절감 재배기술 및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한 기술보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21세기 지구환경에 대한 국제적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신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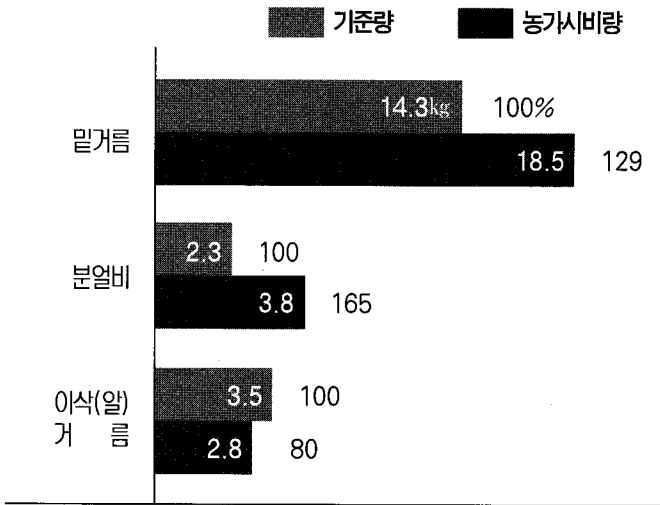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최신품으로 개량된 건조·저장시설

비료·농약의 저투입농법기술 보급, 병해충 정밀조사에 의한 방제횟수 절감 등 친환경농업 재배기술을 확대보급도록 할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수도물 이용시민이 팔당호 지역 주민에게 개발제한에 따른 일정한 부담을 골자로 하는『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팔당상수원의 1급수화

를 실천하다는 계획하에 농업부분에서는 유기질비료와 축산분뇨 공공처리 및 자원화시설 등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병해충종합관리(IPM)와 작물양분종합관리(INM)등 친환경농업기술을 실천하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을 팔당상수원 인근지역에서 전국의 약 50%정도인 4천9백72ha 6천2백56농가에서 실시하고, 친환경시범마을을 2개소 등을 추진하여 인근 지역으로의

VISION 21 - 21세기 식량부국 이끈다(Ⅱ)



- 밀거름은 N, P, K 성분량의 합계이고 분얼비·이삭거름은 N 임
* 기준량은 조사필지 토양종류별 가중 평균치임

확산과 품질인증 등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늘려갈 계획이다.

병해충방제 및 지력 증진 통하여 고품질 쌀 생산

고품질쌀 생산을 위하여는 병해충방제도 필수적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지력증진과 비료를 필요한 시기에 알맞게 주어야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루 아침에 지력을 크게 높이는 힘들 것이므로 현재 눈에 있는 벧짚을 태우지 않도록 마을 공동으로 규산질비료를 살포한 후 땅이 풀리는대로 논갈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전년도에 벼 재배시 비료 사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표에서 보논바와 같이 기준량에 비하여 밀거름은 29%정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끼칠거름은 기준량보다 65%를 증시하고 기존복합비료(17-21-17, 21-17-17) 사용율도 64%정도였다.

따라서 금년에는 환경보전형 비료 및 BB비료 위주로 토양정밀검정에 따른 시비 기준을 마을마다 게시하고 특히 새끼칠거름 사용때에는 앰프방송등을 강화하여 농업인이 적기에 알맞는 양만 사용토록 하여 기상재해, 병해충, 도복 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

또한 시군별로 도복상습지 주위에 도복경감 시범포를 설치하여 규산질비료 사용, 토양정밀검정에 의한 적정 시비, 유기물증시 등 작물양분종합관리기술을 종합적으로 투입하여 농업인들의 포장과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병해충 정밀예찰 사업에 중점 두고 추진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우리농촌진흥기관에서 가장 고유업무인 병해충 예찰사업을 강화하여 정밀예찰에 의한 효율적인 적기방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이병성품종 재배 등 병해충 우려지역에 대하여 예찰지점을 사전에 선정하여 주기적인 예찰을 실시하고 방제시기를 설정하여 필요한 시기에만 주요 병해충별 방제가 이루어 지도록 할 계획이다.

첫째 초기해충인 벼물바구미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매년 비슷하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저독성 약제로 이양전 상자방제를 중점 추진, 본논방제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둘째 도열병 방제는 일품벼 등 이병성품종에 대하여는 파종전 종자처리수

화제 및 발생전 입제농약 살포 등 사전방제를 실시하고 평야지 등에서는 항공방제(식부면적의 약 50%)를 하며 그의 지역에서는 예찰결과에 따라 초기방제에 주력코자 한다.

셋째 벼멸구류는 7~8년 주기로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기본방제에 포함시키지 않고 6월 이후 저기압 통과시마다 농업기술원에 설치한 기상위성 구름수신 사진의 구름이동 상황과 기상대의 일기도 및 기압배치 등을 참고하여 비래시기 등을 예측하고 유아등 조사와 함께 상습비래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예찰을 통한 방제적기 설정과 요방제밀도 이상 발생지역에만 방제토록 하며 이와 같은 병해충 방제지도 계획을 수립 금년의 벼병해충 방제횟수를 6회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농업인의 문제해결을 위한 현실적 발생정보 제공

금년에도 전년과 같이 작물병해충 예찰회의시 농업인을 참석시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병해충 발생정보를 발표할 계획이다.

주요 시기별 병해충 및 작물생육상황 등을 촬영하여



주부, 전문가 등 관계자들의 전국 유명브랜드 쌀과 경기미 쌀의 밥맛 비교

자료로 활용, 농업인 및 예찰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도록 하여 현실에 맞는 병해충 발생정보(예보, 주의보, 경보)가 발표되어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경기미 브랜드쌀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

경기도 쌀연구회를 중심으로 고품질 브랜드쌀을 생산하여 경기미 전통을 이어가고 이미지를 구축하겠다.

금년에는 미질향상을 위해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벼농사에서 친환경농업기술을 실천하고 생산된 벼를 고품질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최선으로 개량된 1천35동의

건조·저장시설을 지원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마케팅 전략으로 경기미 브랜드쌀 소포장 제품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매년 2회정도 전국의 유명브랜드 쌀과 경기미 브랜드쌀 밥맛 비교 시식회를 개최하여 경기미의 명성을 높여 경기농업인의 소득증대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농약정보**

